작년 ICT 수출 1836억불로 '역대 3위'…"올해도 좋다"

6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경제 회복 견인

반도체 수출 5.4% 늘어…SSD·OLED도 강세

對 미국·중국·EU·베트남 호조…일본만 줄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역대 3번째로 좋은 실적을 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18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이는 2018년(2203억 달러), 2017년(1976억 달러)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수입액은 3.9% 확대된 112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710억 달러로 흑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 ICT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면서 주춤했다. 이후 6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수출은 10.2%로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5.4% 늘어난 100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5세대(5G) 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이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이 303억 달러로 17.8% 증가하면서 연간 최고 수출액을 갈아치웠다.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1.5% 증가한 639억 달러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53.1% 늘어난 139억 달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이 101.5%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액 달성을 이끌었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7억 달러로 5.1%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액이 6.4% 증가하면서 109억 달러를 기록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3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휴대폰 수출액은 113억 달러로 6.0%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8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액이 각각 607억 달러, 33억 달러로 1.7%, 7.3% 확대됐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221억 달러로 20.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81억 달러, 25.8%), 휴대폰(45억 달러, 95.9%)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9.6% 확대된 298억 달러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101억 달러, 21.7%), 휴대폰(32억 달러, 16.1%), 반도체(115억 달러, 7.0%) 등 주요 품목이 선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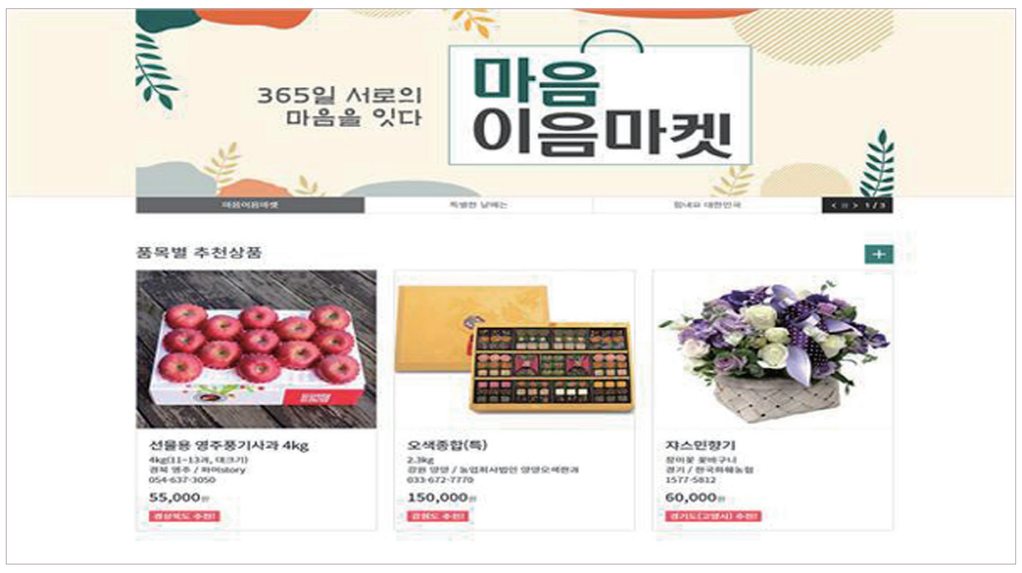
유럽연합(EU)으로는 4.8% 증가한 112억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반도체(23억 달러, 4.5%), 휴대폰(11억 달러, 57.0%) 등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5.1% 감소했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11억 달러, -16.9%), 디스플레이(1억 달러, 47.4%) 등이 부진했다.

산업부는 올해 ICT 수출이 반도체, OLED 패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는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올해도 ICT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봉우 기자



"설 선물 '마음이음마켓'에서"

농식품부, 전자 상품모음집 운영

지역특산품·식품명인 등 340여개 선물세트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 '마음이음마켓'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220여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만드는 감홍로, 한과종합세트 등 28개 상품이 수록된다. 경영활동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짧은 청년 창업농이 생산한 27여개 상품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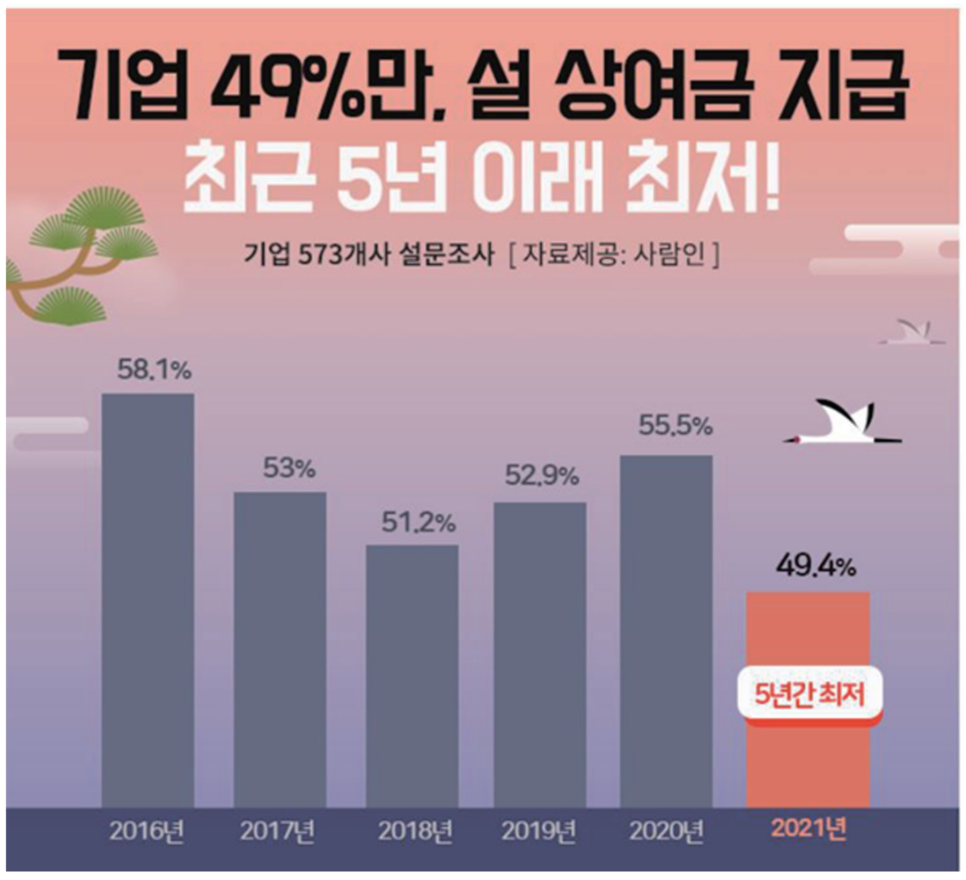
마음이음마켓에서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구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협업으로 18일부터 전국 농협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홍보 등을 전개해 설 명절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설 상여금 지급 기업 49%…5년래 최저

지급 기업 1인당 지급액도 작년보다 17% 감소한 '73만원'



불경기에 직장인의 또 하나의 수입인 '설 상여금'이 대폭 쪼그라들 전망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73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4%만이 지급한다고 답했으며 절반이 넘는 50.6%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여금 지급 기업은 지난해 조사 결과(55.5%)보다 6.1%p 감소했다. 지난해 포함 과거 5년간을 살펴봐도, 2019년(52.9%), 2018년(51.2%), 2017년(53%), 2016년(58.1%)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5년 내 처음이다.

대기업의 지급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 대부분(91.4%)의 대기업이 설에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37.5%만이 지급한다고 답했다. 이는 중견기업(44.6%), 중소기업(50.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평균 지급 금액도 작년보다 대폭 줄었다. 지난해 88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올해 17% 가량 떨어진 73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290개사) 중 31%는 작년에 지급을 했음에도 올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3.4%,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들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선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재무상태 악화 등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31%),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7.2%), '불경기 등 내외부 환경이 어려워져서'(19%), '지난해 목표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14.1%) 등의 답변이 있었다.

더불어 이들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 과반 이상의 기업(61%)이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573개사) 중 71.9%는 직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1인 평균 예산은 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햄, 참치 등 가공식품'(44.7%, 복수응답), '한우, 생선, 과일 등 신선식품'(25.2%), '상품권, 이용권 등 현금 외 유가증권'(19.2%), '비누, 화장품 등 생활용품'(13.8%) 등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선옥 기자

가격 할인·풀 콜드 체인·정부 공인

20% 할인쿠폰 제공…설 선물세트에도 적용

장보기 애플리케이션 마켓컬리가 2월7일까지 '믿고 먹는 컬리 수산'을 연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사업자로 또다시 선정된 데 따라서 선보이는 첫 번째 기획전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국민을 돕기 위해 제철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총 7차례 기획전을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마켓컬리는 12월까지 총 8차례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집밥' 메뉴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수산물 130여 종을 선정해 최대 45% 할인하고, 20% 할인 쿠폰(ID당 1회, 최대 1만원 할인)까지 제공해 더욱더 저렴하게 판매한다.

지난해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에 오른 오징어를 최대 25% 할인한다. 제철 별미인 과메기도 최대 10% 저렴하게 내놓는다. 오늘 아침 바다에서 채취해 내일 아침 배송하는 전복을 최대 30%, 국, 조림 등 쓰임새가 다양한 멸치를 최대 20% 가격을 낮춘다.

2월11일부터 시작할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 구매 시에도 20%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고품격 선물인 '법성포 참맛 프리미엄 굴비 오가 세트 1.6kg'(25% 할인), 1kg 넘는 제주 은갈치 두 마리를 손질해 담은 '제주 생물 갈치 선물 세트 2.4kg'(40% 할인)', 전남 완도군 깊은 바다에서 해녀가 캐낸 '자연산 전복 선물 세트'(45%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개, '풀 콜드 체인'을 통한 산지에서 식탁까지 최적 온도 배송 등에 힘입어 2019년 대비 126%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 새우, 연어, 고등어 순으로 많이 나갔다.

지난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상품은 굴비였다. 전복, 국산 새우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 수소차 '2021 넥쏘' 출시…실구매가 3265만원부터

고객 선호 안전·편의사양 확대 적용하고 차량 음성 인식 기능 개선

수소전기차 '넥쏘'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한 수소전기차 '2021 넥쏘'를 18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넥쏘는 1시간 운행할 경우 26.9Kg의 공기가 정화돼 성인(체중 64Kg 기준) 42.6명이 1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궁극의 친환경차다. 넥쏘 10만대가 2시간(승용차 기준 하루 평균 운행시간)동안 달리게 되면 성인 35만5000명이 24시간 동안 호흡할 공기를 정화하는 수준이다.

2021 넥쏘는 ▲10.25인치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 ▲물 배출 기능 ▲레인센서 ▲앞좌석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등 편의·안전 사양이 기본 적용됐으며, 차량 음성인식 기능이 개선됐다. 가격은 ▲모던 6765만원(개소세 3.5%·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 ▲프리미엄 7095만원이다. 이는 기존 대비 125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현대차는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로 적용해 상품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판매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보조금이 3500만원(국비 2250만원, 지자체 1250만원)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고객 구매가격은 ▲모던 3265만원 ▲프리미엄 3595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기존 모델보다 3.25인치 넓어진 10.25인치 크기의 클러스터는 운전자 시인성을 높이고 노멀·에코·에코+ 주행 모드별로 다양한 색상의 그래픽이 적용돼 운전자에게 보다 즐거운 주행환경을 제공한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기본 적용돼 최신 내비게이션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물 배출 기능은 운전자가 물 배출 버튼을 누르면 머플러를 통해 물이 밖으로 빠지도록 조정하는 장치로, 차량 머플러로 배출되는 생성수로 인한 바닥오염을 방지해 준다. 레인센서는 와이퍼 오토 모드에서 강우량에 따라 최적의 작동 횟수를 자동 조절한다.

다양한 편의사양 외에도 탑승자의 안전성을 고려해 창문을 닫을 때 장애물이 끼면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기능을 기존 운전석에서 1열 동승석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차량 제어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가 음성으로 풍량이나 풍향을 조절할 수 있고 시트 및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의 열선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동취재본부